

샌드위치패널 급성장

연간 15 20% 신장 ... 다양화 · 단열강화 추진

단열성 · 시공의 간편성 · 신속성 등으로 인해 샌드위치패널시장이 연간 15 20%의 급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단기간에 시공이 가능한 단식공법이 확산되면서 패널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냉동 및 단열, 특수창고에 소규모로 이용되던 것이 최근 공업용 뿐아니라 상업용과 주거용 건축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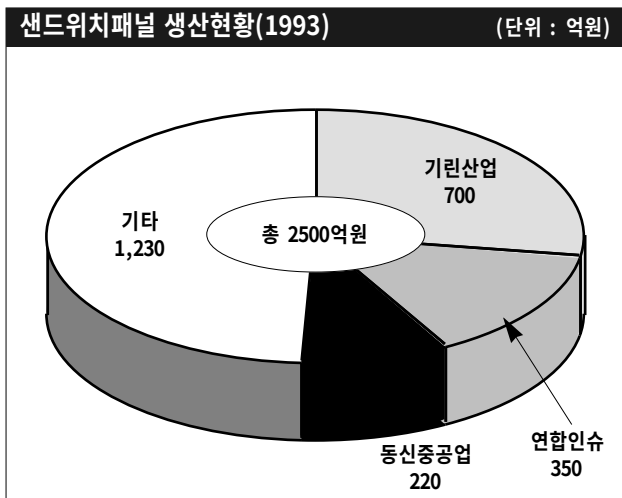
샌드위치패널시장은 83년 20억원규모에 불과했으나 93년 2500억원으로 급성장했으며 94년에는 3000억원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시장은 스티로폴패널의 경우 초기 비용이 적고 생산이 용이해 지난 10년간 신규기업 및 소규모기업이 난립하게 되었으며 현재 약 60여개기업이 참여, 과열상태에 있다.

패널의 용도 및 시장의 확대, 신규기업의 참여로 기존 기업들간의 경쟁도 심화돼 시공방법의 개발과 제품의 다양화 ·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시장은 기린산업을 비롯한 연합인슈, 동신중공업이 선두기업으로서 3파전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기업이 전체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최대기업인 기린산업의 경우 93년 약 700억원의 매출을 기록, 92년에 비해 28% 신장해 전체시장의 28%를 점유했다.



연합인슈는 인슈Glass wool패널 2시간 내화구조지정고시를 획득하는 등 제품의 품질향상에 주력, 93년에는 92년에 비해 25% 신장한 350억원의 매출을 기록, 시장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동신중공업도 Glass wool 및 PU패널에 주력, 9%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외 우주판넬, 동양판넬, 한국판넬 등도 각각 5% 내외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린산업은 국내 최초의 샌드위치생산기업인 코리아아이소월을 인수, 조립식 단열패널을 생산하기

시작해 현재 반월 제1공장에 EPS패널, 제2공장에 PU폼패널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Glass wool패널도 생산 중에 있다.

연합인슈는 국내최초의 Glass wool패널 내화구조지정고시 획득에 성공했으며 국내 패널공사로는 최대규모인 110억원의 부산군기지창 이전공사를 수주, 64억원은 인슈에서, 45억원은 국제강건에서 시공할 예정인데 국제강건공사 중 20억원은 연합인슈패널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향후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주의 하서농공단지에 Glass wool 패널을 주로 생산할 1만5000평규모의 제3공장을 착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신중공업은 89년 최초로 UL마크를 획득했으며 PU패널과 Glass wool패널, 냉동 · 크린룸패널과 농어촌 조립식 주택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또 동신중공업은 EPS패널을 생산하지 않고 PU패널 및 Glass wool패널을 주로 생산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향후 시장 확대의 발판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샌드위치패널은 착색아연도강판이나 갈바륨강판, 알루미늄 및 스테인레스판 사이에 EPS, PU, Glass wool 등 단열재를 내심재로 하는 조립식공법의 단열패널로 중량이 가볍고 시공이 간편하며 용도에 맞는 단열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샌드위치패널은 단열내심재의 종류에 따라 크게 EPS폼패널, PU폼패널, PIR폼패널, Glass wool폼패널로 나뉜다.

종류별 수요는 EPS폼패널이 가격이 저렴해 전체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이 용이한 관계로 소규모기업들이 난립하고 있다.

또 PU폼패널 및 PIR폼패널이 26~27%를 차지하고 있는데, PIR패널은 PUR 패널의 장점을 살리고 난연성·내열성·저연성 등을 보완한 Polyisocyanurate Foam을 단열소재로 한 것이다.

PIR은 붉은 벽돌의 33배, 콘크리트의 76배에 달하는 단열효과를 가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수요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Glass wool패널은 23%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PU폼패널 및 PIR폼패널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샌드위치패널에서도 단열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EPS패널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며 PU, Glass wool패널로 대체되고 있다.

이에따라 패널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축 및 패널의 단열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열기준의 미비로 영세기업이 난립하고 불량자재의 사용이 우려되고 있다.

또 패널의 규격과 KS획득 제품을 사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품 및 단열요구에 따른 보험효율의 차별화도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9/12>